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심 속의 꿈”에 관한 조형성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권 응

“동심 속의 꿈”에 관한 조형성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권 응

인 준 서

권 응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은 개인의 여러 여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며 살아가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간다. 또한 자신의 꿈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보다 큰 꿈을 키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꿈은 사람들의 개인에 맞게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그들의 성장 과정이나 유년 시절의 기억, 사회적 환경 등에서 출발된다. 사람들은 본인의 희망을 이루기에 앞서 가상공간에서 자신만의 자유로운 세계를 펼친다.

이 속에서 희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며, 혹은 위로를 얻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도 하기에 사람에게 자유로운 가상공간인 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유로운 가상공간인 꿈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중요한 일중에 하나이며,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을 펼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조직화, 획일화 되어진 일상 속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느끼는 무미건조함 속에서 꿈은 안식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꿈에 대한 생각을 “동심 속의 꿈”라는 명제를 가진 작품에 반영하고 본인의 유년 시절의 기억 및 환경을 토대로 시작되어진 작품속의 형상들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작품에 바탕이 되는 꿈의 공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새로운 토대로 삼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작품 제작 동기와 연구방법 및 제작목적을 설명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본인이 연구해온 “동심 속의 꿈”의 명제를 가진 작품들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작품의 바탕이 되는 꿈의 의미와 조형화 된 별자리의 이미지, 알의 형태, 작품 속의 본인 모습의 투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정리하여 앞으로 새로운 작업방향을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꿈의 공간	3
2) 별자리의 의미	5
2) 별자리와 인간	8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9
1) 작품의 틀	9
2) 작품 속 사람의 형상과 알의 이미지를 통한 표현방법	12
3.작품분석	14
III. 결론	28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꿈(夢 Dream) I	14
【작품 2】	꿈(夢 Dream) II	16
【작품 3】	꿈(夢 Dream) III	18
【작품 4】	꿈(夢 Dream) IV	20
【작품 5】	꿈(夢 Dream) V	22
【작품 6】	꿈(夢 Dream) VI	24
【작품 7】	꿈(夢 Dream) VII	26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성취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 이상세계를 ‘꿈’꾸며 살아간다. 이는 현실의 불안과 피곤함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생활, 혹은 고민거리 등에 대해 저항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즐거우면서도 불안을 느끼고, 슬픔 속에서도 즐거움을 생각한다. 이는 자신을 스스로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인간의 성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며 살아가는 불안과 완전하지 못함에 대한 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이는 꿈을 꾸는 행위로 연결된다.

인간은 현생활의 위로를 얻기 위해 자의를 통해 현생활의 기반으로 꿈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바라며 뜻을 세우기에 생각, 표상, 그리고 기분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의식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심리학적 요소에 반영되어 태도가 변화하기도 한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기에 그 꿈은 주체가 성장하면서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게 변화되고 세분화,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또한 꿈을 꾸는 것은 위로와 동시에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현 시점까지 위와 같이 꿈을 꾸는 행위로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로를 얻으며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 주로 등장하는 조형화된 별자리의 형상과 알의 형상은 본인에게 있어 꿈으로의 접근 경로와 열망을 의미한다.

별자리는 옛날에는 여행자와 항해자의 길잡이였고, 오늘날에는 천문학자들의 별 하늘의 지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목표점에 이루게 하는 경로를 의미하기도 하며 지식을 얻게 해주어 선견지명을 가지게 해준다.

또한 별자리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과 즐거움을 주며 꿈을 표현하는 소재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인간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꿈을 꾸는 행위와 실제 목적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별자리를 관찰하며 천릿길을 걷는 여행자의 노력은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찾거나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별자리를 통한 꿈의 표현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관찰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본인의 내면을 성찰하고자 한다.

또한 별자리의 이미지를 주로 작품 속에 사용하게 된 동기와 이론적인 근거를 연구하고 그 외에 등장하는 조형화 된 알의 이미지와 자아성찰을 하는 본인을 재현한 작품 속 이미지를 기반으로 본인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꿈의 공간

"무의식의 정신활동에는 꿈과 환상이 있다."¹⁾ 우리의 무의식적 소망과 욕구는 꿈의 세계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흥미로운 상황이나 역동적 움직임은 꿈과 상상을 통해 실현해보면 새로운 창조적 공간을 구성 할 수 있다. "상상은 이미지들을 새로 조합, 통합, 변모 시키는 종합적인 기능이다."²⁾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상을 통해 꿈과 환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상상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며 이는 상상 속 자유로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환상, 즉 '(Fantasy)의 어원은 라틴어 'Fantasticus'(판타스티쿠스)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그리스어 'Phantazein'(판타체인)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눈에 보이게 하다', '보여주다'를 의미한다."³⁾ 환상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혹은 내면의 것, 초현실적인 면까지 보이게 만든다. 이것은 자유로움과 신비감을 준다.

"상상적 경험 또는 활동을 우리 자신을 위해 창조함으로써 우리는 우

1) 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5, p117.

2)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민음사, 1976,p299.

3) 김지아, 「판타지 그림책의 공간구성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2004, p5.

리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예술인 것이다. "4) 이러한 예술가의 상상을 통해 환상적 내면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환상, 상상, 꿈을 이미지로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사고와 감성이 작용한다. 그렇게 때문에 환상적 이미지는 단순한 사물의 재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창조적 표현이다. 감성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을 정서적 반응, 생리적 변화에서 표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분이나 감정이며, 나아가 사고의 동적 양상이다. 또한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대상과의 교감을 이루는 관계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상과의 관계로서 인간과 환경, 인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능력으로서의 감성을 척도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감성이란 누구나 그 의미를 느끼고 있지만, 그 개념의 복잡성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단어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성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대하여 감각, 지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철학적으로는 대상으로부터 촉발되어 표상을 얻게 되는 수동적인 능력, 감각적 자극이나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경험을 수반하는 마음의 능력, 감각이나 지각, 갖가지 감정들을 자아내는 것으로 감수성과 거의 같은 의미로 정의 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감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예술작품과 의식을 분석하는 '지각적 예술 심리학'5)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꿈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은 꿈을 반영하며 이것은 감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꿈의 공간은 무의식으로부터 창조해낸 조형세계를 통해 일상적이지 않은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것은 작품을 보는 이에게 매력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꿈과 상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 속의 세계는 작가

4) Robin George Collingwood, 「상상과 표현」, 김혜련 역, 고려원, 1996, p184.

5)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4, p111.

의 내면세계의 표현이다. 본인의 작품은 꿈을 별자리로 표현하면서 그 속의 본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새로운 창작의 덩어리로 만든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진정한 예술의 바탕은 다름 아닌 내면의 정신세계"⁶⁾라고 하였다. 꿈은 예술가에게 당연히 마주해야 할 자연스러운 것이다. 꿈꾸는 일을 통해 예술가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꿈이라 믿는 것들이 보다 근원적인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 자연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 속의 다양한 면을 예술가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형은 이러한 표현 중의 하나이다. 조형 속 세계는 '허상'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밝고 희망찬 미래의 실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본인의 꿈은 실현된다.

2) 별자리의 의미

현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준다.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가져다준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많은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 부작용도 공존하게 된다.

현대문명이 가져다 준 여러 이점 속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안정을 얻게 되었지만 반면 고독과 불안, 그리고 물질로 충족되지 않는 내면적 공허함을 느끼며 정신적인 안정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속의 자아가 아닌 순수한 자아를 찾아 위로와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하고 이를 동경하게 만든다. 이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며 동심으로의 회귀를 원하게 하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6)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4, p111.

본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위로를 얻고자 해가 진 후, 별자리를 바라 보며 별을 따라 본인이 꿈꾸는 이상세계에 다다름을 꿈꾸던 유년 시절을 추억하게 되었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사막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가 밤하늘의 북두칠성의 끝에 있는 북극성을 따라 길을 찾아 갔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별자리의 동경을 자극시켜 주었다. 별자리는 마치 하늘의 지도처럼 느껴졌고,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어린 시절, 본인의 어머니는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별빛은 사람에게 빛으로 길을 안내해준다고 얘기해주시곤 하였으며, 본인이 성인이 되어 세상 속에 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셨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바라본 별과 별자리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오던 현실에 빛을 비추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리라 믿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며 주변까지도 환하게 해줌으로 현실 속에서 자신 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도움을 주는 존경받는 인간상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어머니의 희망과 같이 별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하였고 이는 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남아 목표이자 이를 이루기 위한 힘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실로 옛사람들이 여행 중이나 항해 중에 별자리를 따라 목표지점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별자리에 대한 동경심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장하게 해주었다.

본인에게 있어 이러한 별자리는 이상세계로 향하는 경로가 되어주는 대상이며 마음속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현실로 드러나 노력의 힘을 주었다.

또한 별자리는 현실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의 막연한 노력으로 얻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년 시절의 동심으로 바라본 별자리를 통해 해소하게 해주었으며, 또한 지나간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심리적으로 순수함을 느끼게 하고 유년 시절의 감성을 다시 일깨워주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주었다.

본인은 작품 속에 별자리에 대한 기억을 조형화 하여 삽입함으로써 관객들에게도 유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현실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고자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한 때 어린아이였을 시기가 있었으며 저마다 간직한 유년 시절의 소중한 추억은 시간이 흘러 그들이 성인이 된 현실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동화되어 간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마음에 남아서 오래도록 기억의 대상이 되고 향수를 자극하며 추억하게 하고 이는 또다시 현실속의 동경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본인 역시도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관찰하던 별자리는 성인이 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본인의 마음속에 남아 마치 고단한 현실에서 탈피하여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이상세계로 안내해 줄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본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본인의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형상화 되었고, 창작활동과 연관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추억 속에 별자리에 대한 기억을 다루는 작업을 통해서 본인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환기 시켜주는 정신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상실해 가는 인간의 근원적 정신과 감정을 되찾고자 하였다.

3) 별자리와 인간

해와 달을 빼고 하늘에 보이는 모든 천체를 별이라 칭한다.

별자리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것들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실제 하늘에는 별만 있고 별자리는 없다. 우리가 천문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별자리는 몇 개의 별들이 모여서 그 이름에 맞게 형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하늘에는 그렇게 별들을 연결해주는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임의대로 선을 이어 그것을 통하여 별자리가 생긴 것이다.⁷⁾

사람들이 하늘의 여러 현상에 궁금해 하며 관심을 가지고 동경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밤하늘의 별의 움직임은 인간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자연과 인간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한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하늘의 현상이 땅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미리 암시한다고 믿었고, 동양의 별자리들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고, 때때로 인간사에 개입한다고 생각해왔다.

예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북두칠성을 들 수 있다. 북두칠성은 큰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7개의 별을 총칭하는 말로 그 모양이 국자 모양과 유사하다. 7개의 별 모두 2등 내외의 밝은 별이고 예로부터 항해할 때 길잡이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자리로 여겨졌다. 북두칠성 외에도 삼국시대 초기부터 각 지방에는 연초나 중간에 별자리를 보고 풍과 흉을 점치는 풍습이 있으며 해마다 시일을 정하여 영성, 노인성 등 별자리에 제사를 지냈다. 또한 청동기 유적

7) 이태형,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김영사, 2000, p358.

인 고인들의 석판에 하늘의 별이 종종 그려져 있는 것이 발굴되며, 고구려, 고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의 벽과 천장에는 사망신을 비롯한 별자리들이 그려졌다. 이처럼 옛부터 각종 성황, 사당과 연계하여 칠성, 삼태, 태을, 천황 등의 별과 관련된 토속신앙이 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⁸⁾ 인간은 별에 관한 전설, 소설, 신화 그리고 별과 인간의 관계, 또는 행성의 운동에서 점성술을 만드는 등 일상적인 삶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끊임없는 밤하늘의 공간을 보며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로 담겨진 무한한 공간임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하늘의 별을 그려보려는 인간의 노력은 동굴벽화, 점토판, 고인돌 등에 나타나있고, 별들의 움직임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에 의한 여러 종류의 천문도가 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학의 싹은 천문학을 발전시켜 놓았다. 이렇듯 인간은 하늘을 보면서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별자리에서 얻어진 감정을 미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1) 작품의 틀

예술의 창작 과정에 있어서 작품의 형태는 그 자체가 존재 이유를 드러내고 작가의 내적 심상이나 감정을 보여주며 예술가에 있어서 그가 추구하는 의식 또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순수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무의식의 세계, 꿈, 환각 등을 끌어 들여 현실에 대한 새로

8) 「세계미술 용어사전」, 원간미술편, 중앙일보사, p203.

운 욕구를 창조하려고 한다.

모든 예술작품이 작가의 심리적인 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꿈의 세계도 개인의 심리적 자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개인의 심리 세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무엇이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설사 본인이라 할 지라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제까지 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창조적인 예술로 나타나고 있는 꿈의 세계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꿈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무한함,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잠재의식과 꿈의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창조하고자 하였다.

본인 작품의 형태는 별자리,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조형화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별자리는 꿈과 꿈으로 향하는 의지를 상징화 한 것으로 표현하고 모든 작품마다 본인의 모습을 조형화하여 나타내어 항상 꿈을 꾸는 자아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이는 작품 속에 본인의 모습을 투영 시킴으로서 내면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의 모든 별자리에는 LED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과 입체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빛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며 마찬가지로 공간에도 본질적인 것이다.

“무의식의 표현은 잠재의식의 표출로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형상성을 전개하고 해석하여 인간 의식 속에 고정되어있는 관념을 추방하므로 인간 정신세계를 해방시켜 무의식 세계를 드러낸다.”⁹⁾ 본 연구에서는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것들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

9) 한덕진, 「꿈과 잠재의식」: 잠위당, 198, p85.

여해 새롭게 가치를 만들며 인간의 감정과 느낌, 반응을 순간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다.

예술가는 자연과 그 현상에 대해 깊이 관여하여야 하고 감명을 받지 않고서는 좋은 창작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그것을 보는 눈이 없이는 아름다움을 발견 할 수 없으며, 보는 눈을 통해 비로소 그 존재가 인간에게 확인된다. 여기서 보는 일이란 단순히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주관적인 세계를 거쳐 보는 것을 말한다. 즉, 예술은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하여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이며, 어떤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물상의 생명을 자아내게 하는 데에는 실제적인 대상의 사실적인 상태로부터의 일정한 양의 변화가 필요하다.

변형을 함에 있어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태상의 필연성, 그리고 예술가의 목적과 의도에 의한 과장 및 축소, 변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형상을 개성적 형식에 의해 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작품에 나타나는 별자리의 이미지들을 유년 시절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무한한 꿈의 공간 속의 별자리를 주관에 의하여 변형된 형태로 새롭게 조형화하였다.

별자리의 이미지는 점과 직선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실로 별의 크기는 상당하지만 사람들에게 지각되는 별은 감각적으로 위치만 생각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크기와는 다르게 점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표현된 점과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본인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별자리를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품은 꿈에 대한 열망을 별자리로 상징하고 빛을 추가하여 더욱 몽환적인 느낌을 관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하였으며, 점과 점

을 연결하는 직선 속에 뿔뿔히 있는 빛을 이용하여 마치 작품 속의 별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흐르고 있는 듯한 상황을 재현하여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LED 조명을 이용한 빛은 반짝거리는 별자리의 이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빛이 가지는 특유의 몽환적인 느낌을 이용하여 전시장 공간을 본인이 위에서 설명한 꿈에 이르게 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관객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고자 하였다. 조도를 낮춘 전시 공간 속 여러 작품의 LED조명을 통해 전시장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았을 때 밤하늘의 군데군데에 자리 잡고 있는 별자리를 관객들로 하여금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전시장의 전체 모습을 바라보며 밤하늘을 연상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기억을 기반으로 추억하게 하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를 위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2) 작품 속 사람의 형상과 알의 이미지를 통한 표현방법

본인의 대부분의 작품 속에는 별자리 외에도 사람의 형상과 알의 이미지가 표현 되어져 있다.

사람의 형상은 실제로 본인의 사진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이는 자아를 표현함과 동시에 꿈을 꾸면서도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던 자아를 작품에 포함시켜 본인의 꿈을 향한 열망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로 하여금 동심으로 회귀하여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받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꿈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형태는 알의 이미지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노력과 함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러한 시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당시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힘든 과정이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시간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되며 비로소 그 시간이 값진 것이라 깨닫게 된다. 알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부화의 시간을 갖는데 이들은 어둠 속에서 끝없는 움직임을 가지며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완성체로 탄생하게 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탄생한 하나의 완성체는 또 다른 미래의 완성체를 꿈꾸며 또다시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의 의미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고된 시간과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꾸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작품에 알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무의식 속에서 꿈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별자리의 이미지와 이를 바라보는 자아, 그리고 노력의 시간 끝에 완성체의 탄생의 의미인 알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본인의 꿈에 대한 이상을 노력을 통해 이루어 내어 꿈을 완성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3. 작품분석



【작품 1】 꿈(夢 Dream) I, 스테인레스스틸, LED조명,
500×100×15cm, 2011

【 작품 1 】 꿈(夢 Dream) I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LED조명

크 기 : 500×100×15cm(가로×세로×높이)

제작연도 : 2011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레이저 가공 하고 알콘으로 용접하여 그라인딩 하여 마감하였다. 작품 전면의 파장은 폴리에틸렌로 성형하여 우레탄페인트로 도색하고 마감한 후 LED조명을 설치하여 별빛이 흐르는 형상을 표현 하였다.

꿈의 시작은 별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이 작품은 별뿔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어렸을 때 별뿔별을 보며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소원을 빌던 본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구상한 작품이다. 본인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고 안정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별이 떨어지는 지점의 파장은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꿈속에서 본인의 내면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하단부에 있는 형상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던 어릴 적 본인을 담고 있으며 별을 보며 꿈을 키우던 본인을 의미한다.



【작품 2】 꿈(夢 Dream) II, 스테인레스 스틸, LED조명,
130×130×15cm, 2011

【 작품 2 】 꿈(夢 Dream) II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LED조명

크 기 : 130×130×15cm(가로×세로×높이)

제작연도 : 2011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를 벤딩하여 밀러 마감하였다.

작품 전면 스테인레스 스틸 판부분에 별자리 부분은 타공과 파이프 부분을 타공 후 LED조명을 설치하여 별빛이 흐르는 형상을 표현 하였다.

‘꿈II’의 작품은 머리털자리와 외뿔소자리의 별자리로 표현된 작품으로 본인이 평소 좋아하던 별자리로 구성된 작품이다. 원형내부에 본인을 형상화함으로써 별자리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어릴 적 본인을 나타내고 있으나 원형의 의미는 지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구 안에서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별뿔별은 꿈과 함께 커가는 본인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LED조명의 시간성은 본인과 본인의 꿈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작품에서 중첩되는 본인의 잔상은 현실세계에서 느껴지는 본인의 감성적 모습을 담고 혼돈되는 심리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작품 3】 꿈(夢 Dream) III, 스테인레스스틸, 130×130×15cm, 2011

【 작품 3 】 꿈(夢 Dream) III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크 기 : 130×130×15cm(가로×세로×높이)

제작연도 : 2011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레이저 가공 후 벤딩하여 사람의 형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스틸판을 레이저 가공 후 그라인딩하였으며 베이스판과 사람형상을 용접 후 마무리하였다.

‘꿈Ⅲ’의 작품은 ‘꿈Ⅱ’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원형의 의미는 지구(행성)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위에서 본인의 잔상이 지구의 자전처럼 돌고 있는 것은 정체되어있지 않은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묘사한 것이다. 원모양으로 여백(餘白)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표현한 본인의 모습은 여백(餘白)에 공간적 한계성을 뛰어 넘어 외부 공간에 이어 본인의 꿈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작품의 공간이 제한된 형태가 아니라 작품 밖과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낸다.



【작품 4】 꿈(夢 Dream) IV, 스테인레스 스틸, LED조명, 130×90×15cm,
2011

【 작품 4 】 꿈(夢 Dream) IV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LED조명

크 기 : 130×90×15cm(가로×세로×높이)

제작연도 : 2011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레이저 가공 후 벤딩하여 사람의 형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스틸판을 레이저 가공 후 그라인딩했으며, 베이스판과 사람형상을 용접 후 LED조명을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꿈Ⅲ'의 사람과 형태는 같지만 전체 모양이 알 형상을 띄며 중간에는 별자리를 표현하였다. 별자리는 안드로메다 자리를 표현한 작품이다.

탄생과 신비의 의미를 나타내는 '알'의 의미는 본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대신화에서 나타나는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본인에게는 새롭게 태어나려는 의지가 알의 형태로 묘사된 작품이다.

'꿈Ⅳ'에서는 무의식 속에서 꿈을 표현한 별자리와 이를 바라보는 본인의 형상,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로 신비와 탄생의 의미인 알을 이용하여 꿈을 통해 본인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의 설계를 탄생해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5】 꿈(夢 Dream) V, 스테인레스 스틸, LED조명, 130×90×15cm,
2011

【 작품 5 】 꿈(夢 Dream) V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LED조명

크 기 : 130×90×15cm(가로×세로×높이)

제작연도 : 2011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 관을 단조하여 외부표면을 포리싱 기법을 이용하여 마감처리한 후 LED조명을 설치하였다.

‘꿈V’의 작품은 ‘꿈IV’작품의 연장선상의 작품으로 알의 이미지, 별, 본인이 묘사된 작품이다.

보통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속으로 되새겨 보기도 한다.

어릴 적 별을 보며 감상에 빠지기도 하고 소원을 빌어 본적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꿈V’작품은 탄생과 신비의 의미인 알 모양의 형태에서 별자리를 표현함으로써 실제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알에서 깨어나 새로운 이상적 세계로 향해 나아가려는 작가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고 빛이 발산하여 빛 주변에서 이상적인 꿈을 꿈꾸려는 본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주위환경이 투영됨으로서 작품과 본인이 하나 됨을 나타낸 작품이다.



【작품 6】 꿈(夢 Dream) VI, 폴리에틸렌, LED조명, 110×110×200cm,
2011

【 작품 6 】 꿈(夢 Dream) VI

재 료 : 폴리에틸렌, LED조명

크 기 : 110×110×200cm(가로×세로×높이)

제작연도 : 2011

제작방법 : 흙을 계란의 형상으로 성형하고 폴리에틸렌으로 캐스팅 하여 별자리를 투각하고 내부에 LED를 설치했다. 그리고 외부의 표면은 연마 후 우레탄 페인트를 이용하여 표현 하였다.

이 작품은 ‘꿈Ⅳ’, ‘꿈Ⅴ’작품의 연장선상의 작품으로 알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알이 가지는 의미 중 ‘껍질을 깨고나온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입체적인 알에서 본인의 모습을 알속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알을 깨고 현실로 나와 이상세계로의 꿈을 실현시켜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현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소재로 꿈이라는 신비한 요소를 별자리로 표현하였으며 어릴 적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흰색의 알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7】 꿈(夢 Dream) VII, 대리석(마천석), 60×50×40cm, 2011

【 작품 7 】 꿈(夢 Dream) VII

재 료 : 대리석(마천석)

크 기 : 60×50×40cm(가로×세로×높이)

제작연도 : 2011

제작방법 : 마천석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형상을 가공하고 물갈기와 정다듬 기법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순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

살다보면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뇌에 빠지고 갈등을 하면서도 새로운 꿈을 꾸면서 미래를 지향한다. 이 작품은 수많은 '나'중 '나'를 표현하여 본인이 원하는 진정한 본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같은 모습의 반복적 형상은 자아 속에서 갈등하는 본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아 속에서 수많은 고뇌와 갈등에도 어릴적 꿈꾸던 동심의 세계를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그려본 작품이다. 따라서 꿈은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Ⅲ. 결 론

꿈은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이 소통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의 의미를 지닌 것이면서 동시에 항상 개인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상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자는 개인적인 어린 시절 꿈의 세계를 상징을 통해 표현하여, 감각적 호기심과 무의식적 공감을 불러 일으켜 꿈의 상징을 시각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 속에 동심 속의 꿈에 대한 열망을 드러냄으로서 현실 속의 불안함에서 탈피하고 위로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관객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별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 현대 환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별자리를 상기 시켜 줌으로서 어린 시절에 바라보았던 별자리를 떠올리게 해주며 그들의 개인적인 추억을 통하여 그들 역시 본인과 같이 위로를 얻게 하고자 하였다.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 보완으로 나오는 꿈은 우리 일상의 삶과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풍부한 근원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또한 꿈의 표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은 꿈의 해석에 있어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꿈을 객관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이미지의 표현도 창조적인 사고와 개인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하면서도 민감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상징화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꿈이 갖고 있는 많은 소재들을 개인적인 감성에 치우친 작업 활동보다는 진지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만이 작업의 깊이감도 있을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작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객관성의 문제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앞으로의 작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 관찰하고 연구하여 질적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종현, 「신비한 꿈의 세계」: 서울 범조사, 1989.
2. 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5.
3.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민음사, 1976.
4. 이부영 외,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5. 김수현, 「미술, 진리, 과학」: 도서출판 재원.
6. 이태형,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김영사, 2000.
7. 안상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 현암사, 1999.
8. 한덕건, 「꿈과 잠재의식」: 잠위당, 1986.
9. 윤현섭, 「예술 심리학」: 을유문화사, 1995.
10. 잭스피터, 「프로이드 예술미학」: 신문수 역, 1981.
11. 아니엘라 야훤, 「미술과 상징」: 이화숙 역, 열화당, 1995.
12. 에리히 프롬, 「꿈의 정신 분석」: 한상범 역, 서울 정음사, 1998.
13. 프로이드, 「꿈의 해석」: 홍성표 옮김, 홍산 문화사, 1997.

ABSTRACT

The study of moulding in the search to find the
“The Dream in Innocence”
- Focused on My Works -

Kwon, Woo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Men live as having various experiences in diverse circumstances, and based on that, they conduct thinking and raise their own dream. Also, to make their dream come true, most of them pour constant efforts and set even a bigger dream.

In this process, such dream changes and grow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s process mostly starts from their growth process, memory of childhood, or social environment. People unfold their own free world in virtual space before they realize their hope. Within this, they set up a plan to make their hope come true and lay the foundation to grow themselves further. And since they lead a better life through comfort, the dream of free virtual space plays a crucial role to a person.

The dream of free virtual space is one of the happy, precious, and primary things that men can enjoy, and it also lets us unfold our wish to the ideal world.

Dream can also be a haven in the dryness that contemporaries feel

repeating the same life in the organized and unified routine of this modern society.

This author is to reflect her thought of dream into her work with the proposition of “The Dream in Innocence” and examine the figures of the work started from her own childhood memory and environment from various views.

Also, through this research, she aims to consider the space of dream which is the ground of her work, and based on that, she will lay the new foundation for the direction of her follow-up works.

Chapter 1 <Introduction> The motif to create this work, research methods, and purpose of design are explained.

Chapter 2 <Main Body> To consider more profoundly the works having this proposition, “The Dream in Innocence”, which she has studied up until now, this researcher examines the meaning of dream which is the ground of this work, the image of formatized asterism, shapes of eggs, and the reflection of herself into this work.

Chapter 3 <Conclusion> The contents and work of this thesis are summarized and directions for new works are groped.